

고창 터미널 도시재생 사업 '속도'

터미널·주거 복합건물 건축
3월 주택경영투자심사
내년 1월 착공 목표 설계 진행



고창군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감도.

〈고창군 제공〉

고창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의 행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고창군은 사업 파트너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고창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경영투자심사와 사업참여 알리를 공식통보 받았으며 3월 본심사에 해당하는 주택경영투자심사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군은 실무협의 후 시행계약까지 마무리되면 사업 자체가 가시권에 들게 된다고 전했다.

또 LH공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 사업성과, 유지관리 등을 고려해 복합터미널시설과 공동주택을 분리하는 사업계획 변경안이 확정됐음을 알렸다.

이는 2023년 12월 사업계획이 고시될 때 터미널 부지에 터미널 기능을 포함 18층 높이의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하겠다는 계획의 변경안이다.

이 사업은 2022년 12월 전국 최초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토교통부 군 단위 도시재생 국가시범

지구다. 국비 등 총 1777억원을 들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인구의 정주여건 마련, 고창의유기농 신성장 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쇠락해가는 터미널 주변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목적을 갖고 있다. 군은 2026년 1월 사업 착공을 목표로 공공건축

심의와 기존 터미널 이전 등 임시터미널 조성사업의 설계를 진행 중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터미널 혁신지구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돼 고창군 중심지로서 랜드마크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가맹점 '철폐'

2곳 과태료 부과·등록 취소 처분...5곳은 수사 의뢰

정읍시가 정읍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집중 단속을 펼쳐 부정 유통 행위를 적발하고 강력한 조치를 한다.

정읍시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26일까지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한 뒤, 해당 가맹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으로 추출된 529개의 가맹점 중 34개소를 대상으로 유통 실태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2개 업체에서 부정 유통 행위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졌으며, 부정 유통의 규모와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된 5개 업체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의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정읍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상품권 결제 시스템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정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단속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정읍사랑상품권의 취지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사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 어르신 목욕비 지원 바우처카드로

시-NH농협은행 협약...분기별 1만8000원 자동충전

남원시가 1월부터 어르신의 위생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해 노인목욕비지원 사업을 바우처카드 방식으로 전환한다.

남원시는 NH농협은행 남원시지부와 바우처카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바우처카드 전환은 이용자의 편리함을 도모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70세 이상 어르신이 바우처카드를 신청하면, 분기별로 1만 8000원이 자동충전되어 연간 7만 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바우처는 남원시에 등록된 목욕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목욕비 바우처카드 도입으로 어르신과 가맹점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시 '상수도요금 인상' 내년 1월까지 유예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37%...다자녀 감면혜택도 2자녀로 완화

남원시가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추진하기로 했던 상수도 요금 인상을 한시 유예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다.

시는 지리적·지역적 특성으로 상수도 공급에 큰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서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 2010년 이후 15년간 상수도요금을 동결해 왔다.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도내 시 평균 65.86%에 못 미치는 37% 수준이다. 시는 최근 누적된 손실과 경영수지 악화로 상수도 요금 인상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상수도 요금을 60%까지 현실화하는 상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해 왔다.

시는 올해 상수도요금을 지난해 요율로 적용, 2026년 1월 고지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또 상수도요금 다자녀 감면혜택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누수감면, 취약계층 지원, 모범·착한가격 요소 지원 등을 홍보할 방침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최근 열린 민생안전 관련 부서회의에서 "시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움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치매안심센터, 북부권 분소 운영

선별 검사·상담·치료비 지원·예방 프로그램 등

정읍시치매안심센터가 북부권 주민들을 위한 분소를 신대인보건지소(사진)에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소한 분소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로는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선별검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및 조호물품 제공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다.

이는 기존 치매안심센터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통해 북부권 주민들의 편의를 대폭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치매안심센터 분소 운영으로 더 많은 지역 주민이 다양한 치매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치매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정읍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식용 개 사육 폐업 시 마리당 최대 60만원

고창군, 2027년 2월7일부터 식용 목적 사육·유통·판매 금지

고창군이 새해 8억4500만원을 투입해 개 사육 농장에 대한 전·폐업 지원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조치로 오는 2027년 2월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현재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체는 금지 시점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개 사육 농장주에 대한 전·폐업 지원금은 마리당 최대 60만원이며 폐업 시기가 늦어질수록 지원금의 규모도 적어진다.

또 건축비, 가축분뇨비, 농지비 등 위반 사항이 있을 시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감액된다. 이와 함께 개 사육 농장주가 폐업하는 경우 시설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잔존가액이 지급되며 철거는 자치단체가 대행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개 식용 종식이 기한 내 완전히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개식용종식법 종식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7년 2월 이후에는 차질 없는 법시행을 위해 단속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